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Social Withdrawal and Friendships in Childhood*

신유림(Yoolim Shin)¹⁾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withdrawal on children's best friendship including prevalence of best friendship, friendship quality, and friend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Subjects were 471 fifth and sixth graders recruited from two public schools. The peer nomination index was used to assess peer victimization, withdrawal, and prosocial behavior. Peer rejection and acceptance were also measured. Children reported on the quality of their friendships using the Friendship Quality Scale (Bukowski et al., 1994). Results showed that compared to control group, withdrawn children had fewer best friends and perceived their friendship quality more negatively. Moreover, withdrawn children are similar with their best friends in respect with prosocial behavior, withdrawal, peer victimization, and peer rejection level.

Key Words : 위축성(withdrawal), 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ship), 친구관계 질(friendship quality), 또래 거부(peer rejection).

I. 서 론

학령기 또래들과의 관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또래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고립된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Hartup, 1996). 또래들로부터의 사회적 고립

은 또래집단의 거부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축성과 같은 아동 개인의 성향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Younger & Daniels, 1992). 위축적인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자신을 또래 집단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시키는 경향을 보인다(Gazelle & Rudolph, 2004).

*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¹⁾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olim Shin,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eokgok 2-dong, Wonmi-gu, Bucheon, Gyeonggi-do 420-743, Korea
E-mail : yoolim@catholic.ac.kr

위축성은 아동의 발달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데, 유아기의 위축성은 정상적인 행동특성으로 여겨지므로 또래 집단의 거부 및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다(Ladd & Burgess, 1999). 반면에 아동기 후반이 되면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영역이 확대되고 여러 명의 또래들과 접촉할 기회가 확장되므로, 이 시기의 위축성은 규준적인 사회행동에서 벗어난 부정적인 행동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아동기 후반에 측정된 위축성 정도는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관계가 있으며(Hymel, Bowker, & Woody, 1993), 우울증과 같은 내면적 문제 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Boivin, Hymel, & Bukowski, 1995). Fordham과 Stevenson-Hinde (1999)의 연구에서도 위축성과 내면적 문제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9세 미만의 아동에서는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10세 이상이 되면 위축성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고 자아 가치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축적인 아동의 또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또래 집단의 거부 및 수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학령기 아동의 위축성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보고하고 있다(Fordham & Stevenson-Hinde, 1999). 또한 최근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공격성과 함께 위축성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예언해주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Schwartz, Farver, Chang, & Lee-Shin, 2002). 반면에 또래 관계의 다른 측면인 위축적인 아동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는 또래 집단 거부나 괴롭힘의 피해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위축적 성향을 보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친구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들(Fordham & Stevenson-Hinde, 1999; Schneider, 1999)이 있으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친구관계는 두 명의 아동들 사이에 상호적 호감과 선호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다. 위축적 아동이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위축적인 행동 특성을 수용해주는 아동을 선택하여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친구관계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현심·박성연(1992)은 위축성이란 낯설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친한 친구관계에서는 행동 억제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위축적인 성향이 친밀한 친구관계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Rubin, Chen, & Hymel, 1993)는 상반된 견해도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Hartup(1996)은 아동기 친구관계의 발달적 기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친구의 수와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행동 특성과 같은 측면을 통합한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아동기 후반이 되면 아동들은 특정한 한 명의 아동과 밀접하고 친밀한 가장 친한 친구관계(best friendship)를 형성하게 되며 Sullivan은 이러한 관계를 chumship이라고 표현하였다(Berndt, 1996). 가장 친한 친구는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아동의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는 아동의 자아 정체감의 발달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Berndt & Perry,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rtup(1996)의 모델을 기초로 아동기 후반에 위축적 아동이 형성하는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맺는 빈도를 살펴보고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 질과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축적 아동들은 과묵하며 행동 억제적인 성

향으로 인하여 낮은 사회적 접근성을 보이므로 또래들에게는 친구상대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Fordham & Stevenson-Hinde, 1999). 또한 위축적인 아동들은 또래들에게 상호작용을 먼저 시도하지 않으며 또래들의 상호작용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일반 아동과 위축적 아동의 친구 수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연령 및 친구 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chneider (1999)는 8, 9세의 위축적 아동을 대상으로 수의 제한 없이 친구를 지명하도록 하였을 때, 위축적 아동의 약 60% 정도가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Ladd와 Burgess(1999)의 연구에서는 위축적 유아와 일반 유아 사이에 가장 친한 친구관계의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질은 친구사이에 공유하는 활동이 아동에게 어떤 사회적 기능을 제공하는가를 의미한다(Berndt, 1996). Bukowski, Hoza와 Boivin (1994)은 하위체계를 적용하여 친구관계 질을 친밀감, 동료애, 안정성과 지원하기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아동들은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 의견 충돌과 같은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Bukowski et al., 1994). 이러한 친구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기초해 볼 때, 과묵하고 행동 억제적인 성향을 보이는 위축적인 아동들에게 친구와 높은 질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을 것이다.

친구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의 행동 특성에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친구

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지닌 경우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Hartup & Abecassis, 2002). 반면에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이거나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아동들과의 친구관계는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공격적인 아동과의 친구관계에서는 갈등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친근감 정도가 낮았다(Grotperter & Crick, 1996).

연구자들은 서로 비슷한 성향이나 행동 특성을 공유한 아동들끼리 친구가 된다는 유유상종(homophily)의 원리에 의해 친구관계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동들은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지닌 또래와는 친구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반면에, 자신과 다른 성향을 지닌 아동과는 친구관계를 조기에 종료하는 경향을 보인다(Pouline & Boivine, 2000). Haselager, Hartup, Van Lieshout와 Riksen-Waleaven(1998)에 의하면, 친구관계의 발달적 의미는 아동과 친구의 특성 그리고 이들 행동의 유사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과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친구관계의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Dishion, Andrews, & Crosby, 1995). 또래 괴롭힘의 가해 아동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가해 성향을 보이는 또래들과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가 가해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혜 · 고윤주, 2004)

위축성은 자신을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는 성향이므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거부의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래에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한 외로움과 불안감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김수미 · 이숙, 2000; Parker & Asher, 1993).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이라고 볼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위축적인 아동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적응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위축적 아동의 친구관계가 사회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Burgess, Wolslawowicz, Rubin, Rose-Krasnor와 Booth-LaForce(2006)의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가 자신에게 우유를 쏟는 애매한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 대한 위축적인 아동의 정서적 반응, 의도 및 대응 전략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친한 친구가 개입된 상황에서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반응의 정도가 낮았으며, 상황의 책임을 자신의 잘못으로 귀인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가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내적 귀인하는 위축적 아동의 자기 비난적 성향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후반인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위축적 성향을 보이는 아동을 선별하고 일반 아동들과 비교하여, 가장 친한 친구관계의 빈도,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에서 차이를 비교해보고, 위축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기초로 심리사회적 특성은 위축성 및 친사회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과 또래 괴롭힘의 피해, 또래 거부 및 수용 정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친구관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Berndt, 1996; Hartup, 1996)에 근거하여,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유무 집단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과 외로움 및 불안과 같은 부적응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은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은 가장 친한 친구관계 질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일반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는 심리사회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위축적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장 친한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5>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집단에 따라 심리사회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천시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 두 곳에서 표집된 5, 6학년 아동 471명이다. 학년 별 연구 대상의 수는 5학년은 223명(47.3%), 6학년은 248명(52.7) 이었다. 대상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자 아동이 269(57.1%)이며, 여자 아동이 202명(42.9%)이었다. 학급별 아동 수는 평균 40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심리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서 Schwartz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Peer Nomination Index(PNI)*를 사용하여 위축성, 및 친사회성을 측정하였다. 학급의 전체 아동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을 각 아동에게 배부해주고 *PNI*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적합한 아동을 학급에서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위축성은 총 4문항(예 :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혼자 노는 아이), 친사회성은 총 4문항(예 : 우리 반 아이들 중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며, 또한 또래 수용은 학급 명단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3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또래 거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3명을 지명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PNI*로 측정한 위축성, 친사회성, 또래 거부 및 수용의 표준화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각 변인 별로 학급의 또래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계산하고, 이 점수를 각 학급별로 *Z* 점수로 변환하였다. 각 변인별 내적 일치도로 계산한 결과 위축성은 .86 친사회성은 .90로 나타났다.

2)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는 Schwartz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보고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피해(예 : 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밀거나 때린다)와 관계적 피해(예 : 우리 반 아이들은 놀 때 나를 끼워주지 않는다)와 같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91로 나타났다.

3) 친구관계

아동들에게 나와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아동 두 명이 상호 지명한 경우를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친구관계의 질은 자기 보고법인 Friendship Quality Scale (FQS : Bukowski et al., 1994)을 사용하여 아동들에게 나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FQS는 4개 하위 영역의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이 척도는 지원하기(support)(예 : 다른 아이들이 내 뒤에서 나를 홍보면 내 친구는 나의 편이 되어 준다), 동

료애(companionship)(예 : 우리는 점심 먹은 후에 항상 같이 논다), 친밀감(intimacy)(예 :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예 : 우리는 싸운 후에 쉽게 화해한다)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며, 각각의 하위척도별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하위척도별 내적 일치도를 보면 지원하기는 .85, 동료애 .87, 밀접성 .77, 갈등해결은 .89로 나타났다.

4) 외로움

아동의 외로움 정도는 Cassidy와 Asher(1992)의 Loneliness & Social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예 : 나는 학교에서 외롭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91로 나타났다.

5) 사회적 불안

아동의 사회적 불안감 정도는 Parkhurst와 Asher(1992)의 Interpersonal Concerns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예 :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걱정된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느끼는 불안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안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8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 시기는 2학기 말로 연구 대상 학교로부터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에 자료 수집이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각 학급을 방문

하여 설문지 작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완성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위축적 아동과 비교 집단인 일반 아동을 선정한 후 가장 친한 친구의 빈도에서 차이를 카이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 본 연구에서 측정한 친구관계 질은 상호 지명된 가장 친한 친구와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아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 간 친구관계 질의 하위 척도에서 차이를 *t*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3> 연구문제 2와 같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아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일반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간 심리사회적 특성에서 차이를 *t*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4>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위축적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5> 위축적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집단 간 심리사회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t* 검증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위축적 아동을 선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Burgess et al., 2006; Rubin et al., 1993) 기초로 전체 아동의 위축성 Z 점수 분포에서 상위 33%인 아동을 위축적 아동으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아동은 비교 대상인 일반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 중 158명이 위축적 아동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에서 남아가 90명(57.0%), 여아가 68명(43.0%)이었다. 전체 연구 대상 아동들 중 일반 아동은 313명으로 남아 179명(57.2%) 여아 134명(42.8%)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카이검증을 통하여 분석해본 결과 아동의 성에 따라 집단 분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002, df=1, ns$).

본 연구의 연구문제별 결과 제시에 앞서서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Z점수로 변환된 위축성, 친사회성, 또래 수용 및 또래 거부는 Z 점수의 평균 및 범위와 함께 지명 빈도의 평균과 범위도 함께 제시되었다. <표 1>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위축성, 친사회성, 또래 수용 및 또래 거부의 경우 지명 빈도의 범위가 넓으며 평균에 비교해 표준 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연구 대상 아동의 개인차가 큰 것을 알

<표 1>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범위

변 인	통 계 치					
	평균	평균지명빈도	표준편차	점수 범위	지명빈도 범위	
위축성(Z 점수)	.00	4.05	.987	-85-4.51	0-42	
친사회성(Z 점수)	.00	5.07	.987	-1.27-4.25	0-32	
또래 괴롭힘 피해(4점 척도)	1.37		.488	1.00-4.00		
또래수용(Z 점수)	.00	2.64	.986	-1.68-3.56	0-11	
또래거부(Z 점수)	.00	2.33	.987	-1.00-4.25	0-27	

<표 2> 연구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N=471)

연구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위축성										
2. 가장 친한 친구 ^a	-.170***									
3. 또래 괴롭힘 피해	.399***	-.144**								
4. 또래 수용	-.278***	.169***	-.210***							
5. 또래 거부	.290***	-.160***	.313***	-.222***						
6. 갈등 해결	-.159***	.041	-.324***	.138**	-.087					
7. 지원하기	-.311***	.097*	-.365***	.241***	-.153***	.518***				
8. 동료애	-.253***	.081	-.337***	.185***	-.129**	.477***	.778***			
9. 친밀감	-.269***	.122**	-.284***	.164***	-.079	.416***	.745***	.702***		
10. 불안	.229***	-.115*	.431***	-.103*	.123**	-.160***	-.130**	-.066	-.097**	
11. 외로움	.330***	-.128**	.505***	-.168***	.227***	-.160***	-.168***	-.165***	-.137**	.459***

a : 0=무 1=유

*p<.05 **p<.01 ***p<.001

수 있다. 또한 4점 척도로 평정된 또래 괴롭힘의 평균은 1.37로 나타나 연구 대상 아동들이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의 피해를 받는 정도가 낮다고 보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연구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위축성은 가장 친한 친구 유무, 또래 수용, 친구관계 질의 4가지 하위 척도와 부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즉 위축성 정도가 높을수록 단짝 친구가 없으며,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낮았으며, 갈등 해결, 지원하기, 동료애 및 밀접성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위축성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 또래 거부, 불안 및 외로움과는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위축성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들로부터 피해와 거부되는 정도가 높으며,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1.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 간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 차이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은 가장 친한 친구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위축적 아동의 경우 단짝 친구가 없는 아동은 113명으로 71.5% 이었으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아동은 45명인 28.5% 이었다. 비교 집단인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없는 아동은 190명인 62.7%였으며, 39.3%인 123명은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가장 친한 친구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 보다 많았다. 카이 점증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 아동에 비해 위축적 아동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3>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 간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 N(%)

친구 유무	집단	
	위축적 아동	일반 아동
친구 무	113(71.5)	190(62.7)
친구 유	45(28.5)	123(39.3)
전 체	158(100)	313(100)

$\chi^2(1) = 5.353, *p < .05$

2.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친구관계 질의 차이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은 친구관계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를 보면 친구관계 질의 4가지 하위 영역 중 지원하기, 동료애 및 친밀감에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아동과 비교해볼 때 위축적 아동들은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지원을 덜 받으며, 동료애 정도가 낮고 친밀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갈등해결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친구관계 질의 차이

친구관계 질	집단	위축적 아동 (n=45)	일반 아동 (n=123)	<i>t</i>
		M(SD)	M(SD)	
갈등해결		4.12(.89)	4.32(.68)	-1.57
지원하기		3.57(.96)	3.92(.80)	-2.18*
동료애		3.71(.98)	4.10(.77)	-2.37*
친밀감		3.64(.77)	3.90(.65)	-2.00*

**p*<.05

3. 위축적 아동 친구와 일반 아동 친구 간 심리 사회적 특성의 차이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들 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가장 친한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t*검증을 통하여 비교해 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사회적 변인들 중 위축성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일반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에 비해 위축성의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사회성,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 수용 및 거부 점수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 위축적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장 친한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관련성

위축적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간의 심리사회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회적 행동 특성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위축성, 친사회성, 또래 괴롭힘의 피해, 또래 수용 및 거부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위축적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심

<표 5> 위축적 아동의 친구와 일반 아동의 친구 간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변인	집단	위축적 아동 친구	일반 아동 친구	<i>t</i>
		(n=45)	(n=123)	
		M(SD)	M(SD)	
위축성(Z점수)		-0.04(.841)	-0.302(.505)	2.231*
친사회성(Z점수)		.020(.848)	.177(1.00)	-1.006
또래 괴롭힘 피해(4점 척도)		1.308(.473)	1.27(.418)	.350
또래 수용(Z점수)		.212(.764)	.235(.864)	-1.168
또래 거부(Z점수)		-.067(.993)	-.267(.605)	1.269

**p*<.05

〈표 6〉 위축적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상관관계 (N=45)

변 인	상관 계수
위 축 성	r=.258***
친사회성	r=.138**
또래 괴롭힘 피해	r=.187***
또래수용	r=.197***
또래거부	r=.166***

p<.01 *p≤.001

리사회적 특성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5.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 유무집단 간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구관계 유무에 따라 심리사회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를 보면 위축성, 또래 괴롭힘의 피해, 또래 수용, 거부 및 불안 점수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위축적인 아동들의 경우 위축성의 정도가 낮으며,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수용되

〈표 7〉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 유무집단 간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변 인	집 단	무집단	유집단	t
		(n=113)	(n=45)	
		M(SD)	M(SD)	
위축성		1.12(1.32)	.52(.80)	3.50***
친사회성		-.19(1.01)	.02(1.00)	-1.26
또래 괴롭힘 피해		1.61(.62)	1.40(.49)	2.19*
또래수용		-.44(.89)	.04(.60)	-3.90***
또래거부		.43(1.39)	-.21(.69)	3.86***
불안		1.97(.85)	1.63(.63)	2.69**
외로움		1.75(.69)	1.59(.46)	1.73

*p<.05 **p<.01 ***p<.001

는 정도가 높고 반대로 거부되는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없는 위축적 아동들은 사회적 불안감 정도가 더 높았으나 외로움 정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 간 가장 친한 친구의 빈도와 가장 친한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 유무 집단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과 외로움 및 불안과 같은 부적응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 간 가장 친한 친구 유무

위축적인 아동들뿐만 아니라 비교 집단인 일반 아동들도 일부만이 가장 친한 친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한 명만을 지명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상호 지명성을 기초로 측정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를 두 명 지명하도록 한 경우도 있으며(Rubin et al., 2006), 이러한 측정방법을 본 연구에서도 적용했다면 가장 친구가 있는 집단의 비율이 좀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사회적 기술과 관련시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

은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다. 위축적인 아동의 경우 또래관계 경험의 결핍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현숙·정현희(2004)는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 수줍은 아동들의 교우관계를 향상시킨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위축적 아동의 동기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위축성은 타인에게 접근하려는 동기와 더불어 회피하려는 동기가 갈등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므로(Asendorf, 1993), 학급 내에 있는 여러 급우들과 적극적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김근영·윤진(1995)은 수줍음과 사회적 기술 및 동기 요인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 요인과 동기 요인을 구분하여 수줍음 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기술이 낮고 관계지향적인 동기가 높은 경우에 수줍음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Gottman(1983)은 4주 동안 여러 쌍 아동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4주 후에 친구가 되는 쌍과 그렇지 않은 쌍의 상호작용에서 차이를 비교하여 아동들 사이에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자기 표출(self-disclosure)의 빈도가 높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인정(validation)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고 상호 관심에 기초한 활동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아동 쌍이 친구가 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해보면 위축적 아동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자기 보호적인 경향과 자신을 노출하지 못하는 공격적인 자아의식(public self-conscious) 특성이 친구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친구관계 질의 차이

일반 아동과 위축적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을 비교해본 결과, 갈등해결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지원하기, 동료애 및 친밀함 수준 모두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위축적 아동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질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Haselager et al., 1998), 친구관계의 질은 관계에 참여하는 아동의 위축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친밀함(intimacy)은 가장 친한 친구관계의 중요한 특징이다(Berndt, 1996). 아동들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축적인 아동들이 보이는 과묵하고 행동 억제적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친구와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다.

Bukowski 등(1994)에 의하면 지원하기, 동료애 및 친밀감은 친구관계 질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표 2>에 제시한 상관관계를 결과를 보면 지원하기, 동료애 및 친밀감 하위 척도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일반아동들과 달리 위축적인 아동들은 가장 친한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갈등해결에서는 일반 집단의 아동과 차이가 없었다. 공격적인 아동들은 친구를 지배하는 성향을 보이므로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갈등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나(Bagwell & Coie, 2004), 위축적인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없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갈등해결은 친구와 싸움이나 말다툼 후에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한국과 같이 타인과의 상호

의존성이 강조되는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친구들과 사이의 갈등은 들어내기 보다 사과하기 및 양보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아동들에게 격려되어진다(Shin, 2007). 위축적 아동과 일반 아동 두 집단 갈등해결 하위 척도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므로, 이는 친구관계의 갈등해결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착 학자들은 아동기 친구관계의 질에서의 개인차를 부모와 맺는 애착관계와 관련시켜 설명한다. 즉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들은 내적 실행모델에 의하여 이러한 경험을 친구와의 관계에 일반화하게 된다(Liberman, Dole, & Markiewicz, 1999). Kerns, Klepac과 Cole (1996)은 아동의 자기 보고법을 사용하여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고 친구관계 질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애착 안정성 점수는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동료애와 인정하기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갈등 및 배반과는 부적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Capaldi, Dishion, Stoolmiller와 Yoerger(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불안정된 애착을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이러한 아동이 맺는 친구관계의 질은 지원 및 신뢰 정도가 낮았다.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아동의 위축성을 예언해주는 주요 요인이므로(Rubin & Coplan, 1992), 위축적인 아동은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친구관계 질의 수준이 낮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친구관계의 질은 자기 보고법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아동의 지각적인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 보면 공격적인 아동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이 보고한 친구관계의 질은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었다(Zakriski & Coie, 1996). 반면에 공격적인 아동과 대조적으로 위축적인

아동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자기 비난적인(self-blame) 사회인지 특성을 보인다(Burgess et al., 2006). 따라서 위축적 아동의 이러한 성향이 친구관계 질의 평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3.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일반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 간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위축적인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일반 아동의 친구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위축적 아동들의 친구들은 일반 아동들의 친구보다 위축성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위축적인 성향이 유사한 아동들 사이에 친구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Adams, Bukowski와 Bagwell (2005)은 친구관계가 아동의 특정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맥락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기초해볼 때, 위축적인 아동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지닌 아동들을 선호하고 이들과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친구관계가 위축적인 행동 특성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4. 위축적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장 친한 친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관련성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축적인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사회적 행동 특성 및 또래 수용 및 거부 정도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발달적 기능은 아동과 친구사이의 행동이 유사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아동이 친구와 바람직한 행동이 유사할 때에만 친구가 보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Haselager et al., 1998). 아동의 위축성은 공격성과 함께 또래 괴롭힘을 예언해주는 아동의 개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Rubin 등(1993)은 위축적인 행동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으며, 자기 주장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보고 따라서 또래들로부터 거부와 괴롭힘을 유도하게 된다고 보았다. 위축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고 가해 아동들에게 지각되므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유발시키게 된다(Schwartz et al., 2002). 본 연구결과에서는 위축적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경우 위축성뿐만 아니라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도 관련성이 있었으므로 이들은 학급에서 가해 집단으로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같은 피해 집단의 아동일 수 있을 것이다.

5. 위축적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관계 유무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위축적인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외로움 변인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들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높고 거부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친구관계가 아동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한 선행 연구(Parker, Saxon, Asher, & Kovacs, 1999)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친구관계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Hartup, 1996; Schwartz et al., 1998), 친밀한 친구가 있는 아동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신재은, 2000; 최미경 · 도현심, 2000; Hodge, Boivin, Vitro, & Bukowski, 1999;)와 일치한다.

더불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위축적 아동들은 사회적 불안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단짝 친구의 존재가 대인간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위축적 아동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외로움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위축적 아동의 행동 성향과 관련해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Rubin 등(1993)에 의하면 아동의 위축적인 성향은 외로움과 같은 내면적인 문제를 내포한 유전학적인 특성이므로 가장 친한 친구의 존재가 이러한 생래적인 특성을 변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Shin(2007)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주는데, 5, 6학년 아동들 대상으로 위축성, 친구관계 및 외로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위축성은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의 수와 친구관계 질은 이러한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영향만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위축적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대한 결과와 관련하여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외로움은 홀로 있어서가 아니라 타인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한 반응이거나 의미 있는 우정관계가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오현미, 1999). 외로움은 사회관계망의 양적 수치보다 대인관계의 질적 측면에 의해 더 잘 예언되므로(Russell, Cutrona, Rose, & Yurke, 1984), 아동이 지각한 가장 친한 친구관계에서 친밀감과 교제의 즐거움이 적고 친구로 받는 인정과 도움의 정도가 낮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가 높을 수 있다(Parker & Asher, 1993). 위축적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가장 친한 친구관계 질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친구관계에 대하여 주관적인 결핍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장 친한 친구의 존재여부가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기 어

려울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위축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 중 일부만이 자신과 같이 유사한 위축적인 성향을 보이는 또래와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 아동과 비교해 볼 때 친구관계에 대한 질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장 친한 친구관계는 위축적 아동이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가해 아동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으며 사회적인 불안감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급 단위를 기초로 형성되는 친구관계를 측정하였으므로, 학급 밖에서 맺고 있는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학교와 집의 거리가 가깝고 같은 이웃에 사는 또래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우리나라 거주문화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학급 밖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친구관계를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의 행동 특성을 측정하였으므로 한번 형성된 친구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아니면 조기에 종결되는 지를 측정하는 안정성(stability)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단기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기초로 이러한 친구관계가 지속되는 안정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축적 성향이 유사한 아동들 사이의 안정적인 친구관계가 장기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아와 비교해볼 때 남아의 위축성은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므로(Rubin et

al., 1993), 아동의 성에 따라 위축성과 친구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해보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근영 · 윤진(1995). 수줍음과 대인관계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6(1), 90-99.
- 김수미 · 이숙(2000). 아동의 위축행동에 대한 연구. **가정과학연구**, 10, 13-21.
- 도현심 · 박성연(1992). 한국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325-338.
-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8(1), 153-165.
- 오현미(1999).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 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해 · 고유주(2004).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24(4), 1-16.
- 이현숙 · 정현희.(2004). 학교기반의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수줍음 아동의 사회적 기술, 불안, 우울,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1(1), 79-100.
- 최미경 ·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 종단적 연구 :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6.
- Adams, R. E., Bukowski, W. M., & Bagwell, C. (2005). Stability of agg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as moderated by reciprocated friendship status and friend's ag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39-145.
- Asendorff, J. (1993). Beyond temperament : A two-factorial coping model of the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In K. H. Rubin & J. Asendorf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 Erlbaum.
- Bagwell, C. L., & Coie, J. D. (2004). The best friendships

- of aggressive boys : Relationship quality, conflict management, and rule-break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8(1), 5-24.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ren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dt, T. J., & Perry, T. B. (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40-648.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1995). The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5), 765-785.
-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 (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1(3), 471-484.
- Burgess, K. B., Wolslawowicz, J. C., Rubin, K. H., Rose-Krasnor, L., & Booth-LaForce, C. (200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ping strategies of shy/withdrawn and aggressive children : Does friendship matter? *Child Development*, 77(2), 371-383.
- Capaldi, D. M., Dishion, T. J., Stoolmiller, M., & Yoerger, K. (2001). Aggression toward female partners by at-risk young men : The contribution of male adolescence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61-73.
-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1), 350-365.
- Dishion, T. J., Andrews, D. W., & Crosby, L. (1995). Antisocial boys and their friends in early adolescent :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quality, and interactional process. *Child Development*, 66(1), 139-151.
- Fordham, K., & Stevenson-Hinde, J. (1999). Shyness, friendship quality, and adjustment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 40(5), 757-768.
- Gazelle, H., & Rudolph, K. D. (2004).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1), 257-278.
- Grottpeter, J. K., & Crick, N. R.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6), 2328-2338.
- Gottman, J. M. (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3, Serial No. 201).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artup, W. W., & Abecassis, M. (2002). Friends and enemies. In P. K. Smith and C. H. Hart(Eds.), *Blackwell's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London : Blackwell.
- Haselager, G. J. T., Hartup, W. H., Van Lieshout, C. F. M., & Riksen-Waleaven, J. M. A. (1998). Similarities between friends and nonfriend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9(4), 1198-1208.
- Hodge, E. V., Boivin, M., Vit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 Protection against i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8(5), 879-896.
- Kerns, K. A., Klepec, L., & Cole, A. (1996).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57-466.
- Ladd, G. W., & Burgess, K. B. (1999). Charting the relationships trajectories of aggressive, withdrawal,

- and aggressive/withdrawal children during early grade school.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iberman, M., Dole, A. B., & Markiewicz, D. (1999). Developmental patterns of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Association with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1), 202-213.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 Psychology*, 29(4), 611-621.
- Parker, J. G., Saxon, J. L., Asher, S. R., & Kovacs, D. M. (1999). Dimensions of children's friendship adjustment :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loneliness. In J. R. Ken & S. Hymel(Eds.), *Loneli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Poulin, E., & Boivin, M. (2000). The role of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boys'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33-240.
- Rubin, K. H., & Coplan, R. J. (1992).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In M. H. Bornstein & M. E. Lamb(Eds.), *Developmental Psycholog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ubin, K. H., Chen, X., & Hymel, S. (1993).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of withdrawal and aggressiv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9(4), 518-534.
- Rubin, H. R., Wojslawowicz, H. C., Rose-Krasnorm L., Booth-Laforce, C., & Burgess, K. B. (2006). The best friendships of shy/withdrawn children :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39-153.
- Russell, D., Cutrona, C. E., Rose, J., & Yurke, K. (1984).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 An examination of typology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6), 1313-1231.
- Schneider, B. (1999). A multimethod exploration of the friendships of children considered socially withdrawn by their school pe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2), 115-123.
- Schwartz, D., Farver, J.,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13-125.
- Schwartz, D., McFadyen-Ketchum, Dodge, K. D., Pettit, G. S., & Bates, J. E. (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87-99.
- Shin, Y. (2007). Peer relationships, social behaviours, academic performance and loneliness in Korean primary 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8(2), 220-236.
- Younger, A., & Daniels, T. (1992). Children's peer nominations for withdrawal : What are the reasons for their choi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55-960.
- Zakriski, A. L., & Coie, J. D. (1996). A comparison of aggressive-rejected children's interpretations of self-directed and other-directed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7(5), 1048-1070.

2007년 6월 30일 투고 : 2007년 8월 26일 채택